

이재명 정부 지역균형발전 의지, 호남이 묻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국정 기조로 '지역 균형 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전통적으로 농업과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광주·전남에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광주광역시도 AI 중심도시를 표방, 국립 AI데이터센터 구축 및 AI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AI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와 기술 실증 생태계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라남도 또한 신안과 영광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본격화와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연계한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유치 등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의 도약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은 1987년 직선제 이후 거의 모든 대선과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왔으나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 및 발전은 터무니없이 열악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 광주는 대전·대구·부산 등 타 광역시가 국책 연구기관과 공공

기관 이전, 첨단R&D 산업과 기업 이전 등을 바탕으로 한 산업 고도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자동차·기계 중심의 제조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농수산업과 석유화학 등 자원 기반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전남도 또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데다, 각종 생활 인프라와 직장, 교육환경 미흡 등으로 인구 유출까지 가속화되면서 전남 22개 시·군 중 2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존폐 위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천명한 이상,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공통된 요구다. 광주·전남이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해 기반을 닦아 온 AI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새정부의 전략과 맞닿아 있는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약속이 아닌 실천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대한민국'에 지역의 미래가 담길 수 있을까. 호남은 지금,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묻고 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국내 최고 AI 인프라 갖춰...“이젠 정부 뒷받침 관건”

광주시, AI 중심도시 도약 본격화

AI사관학교·창업캠프 등 인재 양성 AI기업 지사·연구소 등 유치 활발 국가컴퓨팅센터 유치·AI 2단계 과제 “정부 실질적 재정·정책 지원 필수”

광주광역시가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과 AI사관학교·창업캠프 등 인재 양성과 기업 유치, 기술 실증 생태계 구축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며 'AI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과 정책적 뒷받침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더 큰 도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기본구상 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와 AX실증밸리(AI 2단계) 사업까지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다. 성패의 갈림길에 선 광주의 AI 선도도시 전략이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기조 속에서 본격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향후 정부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 최고 '광주형 AI 생태계' 구축

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총사업비 4269억원을 투입해 첨단 3지구에 AI집적단지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산량 88.5PF, 저장용량 107PB 규모의

고성능 국가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자율주행·헬스케어·에너지 분야의 실증센터와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창업지원 공간 등 77종의 실증장비가 구축돼 있다. 데이터센터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 'H100'을 국내 최초로 탑재해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2200여건의 AI 과제를 지원하고 996억원의 매출, 788건의 특허 출원·등록, 2173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146개 AI기업 지사·연구소 광주에 둥지

이 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광주시는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19년부터 총 254개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이 중 146개 기업이 실제 광주에 지사나 연구소를 개소했다. 특히 반도체 설계(팹리스) 분야에서는 국내 유일 TSMC 협력사인 '에이직랜드'를 비롯해 17개 기업이 유치되며 '광주형 AI반도체(Aim-GJ-1)' 공동 개발도 본격화됐다. 해당 반도체는 CES 2025에서 세계 시장에 첫선을 보였으며, 지역 기업 제품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창업 지원·투자유치·인재 81만명 양성 로드맵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AI창업캠프 1·2호 점을 운영 중이며, 총 75개 입주 기업 등 1098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와 1135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

AI산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한 인재 양성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광주는 전국 유일의 AI사관학교를 중심으로 AI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3지구 'AI집적단지'에 조성된 대형 드라이빙시뮬레이터. **광주시 제공**

인재 저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2020년 개교 이후 지난해까지 1221명이 수료했고, 이 중 68%가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했다. 실감콘텐츠 분야의 GCC사관학교도 지난해 132명, 올해 14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실무형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또 광주시는 최근 '2030 인재양성전략'을 발표하며 AI, 반도체, 콘텐츠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오는 2030년까지 총 81만명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벌대학30' 사업을 연계하고, 전남대·조선대 등의 혁신과제를 지역 산업과 직접 연결하는 방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AI 2단계 예타 면제 과제

현재 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해 민간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고 재공모 참여를 준비 중이다. 당초 1차 공모는 참여 기업 부재로 유찰됐지만, 기업 조건을 완화한 재공모가 곧 이뤄질 예정으로, 광주는 이미 갖춰진 데이터센터·실증 인프라와 연결한 입지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광주의 핵심 과제인 'AI 2단계 AX 실증밸리' 조성에도 총력을 기

울이는 중이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9000억원을 투입해 산업특화 AI 기술개발, 시민 체감형 사회 문제 해결 기술, 개방형 AI 인프라 고도화 등을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미 1·2차 추경을 통해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지만, 본 사업 착수를 위해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국무회의의 결이라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모든 계획과 비전이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선 결국 정부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광주는 이미 공공형 데이터센터, 실증 장비, 기업 유치, 인재 양성 등 AI 생태계 전반을 갖췄지만, 이에 비해 정부의 예산 투입과 정책 추진 속도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광주시는 AI 전략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AI부' 신설과 국가시범도시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내부적으로는 'AI반도체과'를 신설해 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대통령 AI수석 등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AI 2단계 사업 예타 면제는 단지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광주시는 국립 AI컴퓨팅센터 유치와 함께 1·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AI기업 1000개 유치, 인재 양성, 산업·교육·실증이 결합한 AI 생태계를 완성하고, 대한민국 대표 AX 실증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세계최고 기독교 선교병원



광주기독교병원
Kwangju Christian Hospital



재단이사장
주 계 옥



병원장
이 승 옥

120년 사랑의 발자취
나눔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선교병원

37

